

'풍경 - 그림과 그리기' 라는 전시제목은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들을 세가지 단어로 압축해 본 것이다.

어떤 개념적인 생각이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경을 그린다기 보다는 풍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림과 그리기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좀 더 솔직한 목적인 것 같다.

풍경은 '어떤 정경이나 상황'이다. 그럼 흔히 말하는 풍경화, 혹은 풍경그림은 '어떤 정경이나 상황'을 그린 그림쯤이 될 것이다.

풍경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흥미로웠던 것은 '어떤'이란 단어 때문이었다.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의 정경이나 상황을 말하기 위해 '어떤'이란 말을 썼겠지만, 나에게 '어떤'이란 단어는 내가 그림의 소재로 삼는 '정경이나 상황'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어떤'이란 질문이 내가 마주치는 풍경들과 풍경 그림 사이에 간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간격에 '그리기'라는 행위가 있다. '그리기'는 결국 앞서 말한 '어떤'을 화면에 붙잡아 두기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 어느 때는 성공적인 듯 하면서도 또 어느 때는 그게 가능한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런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그림을 그리며, 그림에 대한 다소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풍경'과 '그림'과 '그리기'는 서로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하다. 하지만 어쨌든 열려있는 풍경에 '어떤'이란 질문을 하며 그리기와 그림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풍경과 그림, 그리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걷다가,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떤 풍경에서 눈이 멈칫 할 때, 나는 그 순간이 마치 음악을 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예기치 않게 들리는 불협화음 같다는 생각을 했다. 혹은 매끄럽고 조용한 피아노 연주 중 연주자의 실수로 다른 건반을 눌렀을 때 들리는 어색함 같은 것도 연상되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반복해 바라보는 까닭은 그것들이 나에게 공통의 감정을 환기 시키기 때문인데 이 때의 감정은 기쁨 혹은 슬픔처럼 쉽사리 한 단어로 요약되지 않는, 오히려 서로 다른 감정들이 충돌하며 만들어지는 감정적인 부조화, 불협화음이다.

그런 불협화음은 이내 불안한 감정이 되고, 그런 감정은 내가 보고 있는 광경이나 사물을, 당장이라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암시처럼 느끼게

만든다.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이.



냉각탑이 있는 풍경그림은 작년 우연히 보게 된 옥상의 풍경에서 시작했다.

작년 가을쯤 평소 매일같이 드나들던 건물 옥상에 있는 대형 냉각탑을 발견했다. 훗날 옥상에서 나른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그저 그곳에 있었던(언제나 있어 왔었을) 그것은 바라보는 나를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른한 오후 옥상 위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며 부르르 진동하고 있었던 그것은 사물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나에게서는 불행한 '암시'덩어리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 화면에서의 직선적인 요소들, 다소 차가운 색감과 명도의 대비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긴장감을 조금 더 극대화 시켜보려 했다. 사진으로 찍은 냉각탑 풍경에는 바라본 순간의 긴장감은 증발하고 다소 단조롭고, 비어있고, 공허하게 다가왔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볼 때는 날카롭고, 불편하고, 답답한 기류로 내 주변이 가득 차 있는, 옥상이었지만 실내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때문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나 물리적으로 가깝고 먼 부분을 처리할 때 원근법적인 구도지만 원근법적인 공간감을 의식하기 보다는 되려 어떤 그런 대비되는 것들을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로, 다소 평면적으로 다뤘다.

사진을 보고 그린 구상적인 그림이지만, 비슷하게 보이도록 묘사하거나 풍경을 재현한다는 생각을 하며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나의 호흡이나 붓질의 속도나 그 밖의 화면 앞에서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는 흔적들이 그림의 언어로써 읽혀지고 그러한 언어들이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만들기를 바랬다.



최근에 그린 학교풍경에서는 화면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단위의 직선들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직선적인 요소들을 그릴 때 테이핑을 하면 딱 떨어지는 선들이 만드는 긴장감은 더 극대화 되지만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냥 어림잡아 그릴 때는 되려 어색한 선들이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자를 대고 그릴 때 만들어지는 어설픈 선들은 물감을 두텁게 쓰다 보니 언뜻 직선적으로 보이더라도 가까이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직선이 아니다. 물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일부러 그런 흔적들을 살리기도 하고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면서 그린다. 자를 대고 직선을 그리는 방식은 어느 정도 내 움직임을 제한하지만 반대로 물감의 농도와 양을 두텁게 바르는 방식은 자를 대고 그림을 그릴 때 예상되는 효과를 빗겨가며 충돌하는데 그러한 충돌에서 만들어지는 예기치 않은 흔적들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림을 풀어갔다.

그러한 화면의 흔적들이 단순히 흔적 그 자체를 위한 자취가 아니라, 그림의 언어로써 읽히고 분위기를 만들고 촉각적이고 실제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암시하고 전달했으면 했다. 그러한 화면 위의 물질성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림 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환영적인 이미지와 실제적인 그림이라는 물질적인 조건들(캔버스와 캔버스 위에 발려진 물감)의 경계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긴장감이 생기는데 도서관 풍경에도 그런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그림에 대해서 설명 해 보려 글을 써보려고 하면 번번히 어렵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정작 아무 말 없는 글이나, 써놓고도 이게 맞나 매번 의심한 채 노트 속에 퐁퐁 숨겨두는 꼴이다.

그럼에도 나는 거의 매일 캔버스 앞에서 무언가를 그리는 행위를 반복한다.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 나는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매일 그림을 그리는 꼴인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는지도 모르겠다.

그림에 대해 설명한다기 보다는 그림 주변을 맴도는 나의 이야기 몇 가지를 늘어 놓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1. 그림의 이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요즘은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해 종종 생각하는데 얼마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했던 대답을 밤새도록 후회 했던 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사실 거창한 이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세울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 누군가는 정당성을 이야기 하던데 작업에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할 까. 나는 그림을 그린다. 누군가는 궁금해 할지도 모른다. 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27살이라는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해서 돈 한푼 변변찮게 벌지 못하고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림을 보러 다니고 다시 돌아와 또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림을 그리고 있냐고 물을 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런 질문에 대해 그럴싸하게 대답하기 위해 (사실 종종 이런 질문을 듣기도 했다) 혼자 종이에 끄적거린 글들이 있었다. 다 써놓고 보니 왠지 그럴싸하고, 그래 난 이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잔뜩 늘어놓은 것처럼 죄책감이 들고 공허해지는지. 사실 나도 모른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냥 좋아서, 혹은 그래야 해서, 혹은 그럴 수 밖에 없어서, 차라리 이런 대답이 훨씬 스스로도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혼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쓸 때는 제법 용감해 진다. 누군가와 직접 눈을 마주보며 말을 할 때는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혹시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게 싫고, 행여 후회할 말을 하지는 않을까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 돌아서서 생각하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 2. 그림의 계기

내가 그림을 그리는 계기는 (지금)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좀 더 감정적이고 직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나에게 인상적인 장면이나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들에서 그림이 시작된다. 지금 그리고 있는 냉각탑 그림들도 그 시작은 딱히 설명하면 더 우스워 질 것 같은, 감정적인 끌림, 혹은 보게 된 순간의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다.

나에게 이 같은 느낌이나 끌림은 중요하다. 사실 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림은 어쨌든 보았

던 것이나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나에게 보이는 세계의 어느 부분이든지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없다면 더 이상 그리고 싶은 것도, 그릴 것도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 같은 끌림에 굉장히 솔직한 편인 것 같다. 아니, 솔직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떤 내용이나 의미 내러티브들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그리는 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의미 없이 반복되는 노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역을 하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서, 일상의 시간과 보고 있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 사이에서, 앞에서 '나도 모르겠다' 라고 했던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 그것에 조금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은 마음이 그림의 계기가 된다.

### 3. 그림의 과정

그림을 그릴 때는 캔버스에 몸을 밀어 넣는 다는 생각으로 그린다. 나의 움직임이 화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났으면 하고 조금 더 그림 같은 그림이 되었으면 하고 내 그림이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생각도 한다. 이런 생각을 내 칸에 한껏 밀어 부쳐 보았던 것이 작년 가을 완성했던 무제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이었다. 주변에서 보는 건축물들이 그림의 소재였지만 내가 보았던 것들(형태, 색, 질감, 공간의 느낌 등)은 나의 움직임, 다시 말해 화면 앞에서 그리는 행위와 행위의 흔적들로 추상화 되었었고, 나는 그러한 흔적들이 의도함과 의도하지 않음 사이에서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보이는(혹은 암시하는) 형상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을 그렸었다. 보았던 것들을 재현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기 보다,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다기 보다, 더 사실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화면에 담아내고 싶었다. 구상적인 그림을 그리든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든 작은 그림을 그리든 큰 그림을 그리든 이런 생각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의 나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감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지금의 나에게 정체불명의 말임과 동시에 그림을 통해서 다가가게 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이다.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감정' 그 자체에 반응해, 심지어 뭔지도 모를 것을 그리고 싶어서 붓을 드는 행위가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막연하게 불안해진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생각을 그림 쪽으로 밀고 가고, 그림을 생각 쪽으로 끌고 와 이 어울리지 않는 둘을 어딘가에서 그럴싸하게 만나게 하는 것이 아직 억지스럽게 느껴지고, '손이 가는 대로 그린다'라는 말보다 더 의심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다. 생각은 생각대로 하면 되고, 그림은 그림대로 그리면 생각이 그림에 묻어 나오기도 하고 그림이 또 생각을 키워 나가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걸 나에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림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 같다.

### 4. 보기

"야, 넌 예술가가 될 자격이 없어"

작년 가을쯤 이었나, 한참 졸업 작품에 대한 고민으로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린 채, 학교에서 밥을 지새우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는 나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툭 던지듯 말 하셨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전부 기억나지는 않는다. 아니, 사실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나의 '예술가로서의 자격'으로 시작하신 어머니 말씀은 돌고 돌아 아주머니들의 등산 이야기로 끝이 났던 것 같다.) 그럼에도 기억나는 부분은 어머니의 '보는 일' 에 대한 부분이다.

일을 나가시고 돌아오시는 잠깐의 시간, 집 근처 에서 보게 되는 산책로의 나무들, 나뭇잎들은 계절별로 다르고, 심지어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너는 그림을 그린다는 애가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어머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서 매일 굳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 그것들을 보게 되고 그 주변을 걸어 보고 생각을 한다고.

나에게는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냥 집 앞에 있는 나무들, 풀들이 어머니에게는 매일 매일의 변화이고 그런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자신의 삶까지도 반추하게 되는 특별한 대상들이었다. 아마 어머니에게 그것들은 조경을 위해 심어진 그저 그렇고 그런 나무들이 아닌, 매일같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움이고, 변화 자체였을 것이다. 어쨌든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받은 충격은 (도발적인 첫마디를 제외한다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전혀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집 앞의 나무며 잎사귀 들은 그냥 말 그대로 나무고, 잎사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예술가의 자질이나 자격이나 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보는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한다.

내 그림이 어떤 생각이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림으로 내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아직 어딘지 모르게 곱고럽고 조심스럽기도 하다.

어쨌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하고 싶은 일은 내 눈앞에 무차별적으로 내던져지는 것 들 중에 무언가를 찾아내 시선을 던지는 일이고 내가 던진 시선과 돌아오는 시선 사이에서 바둥거리며 무언가를 기록하는 일이고 일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시간과 속도에 저항하는 일이다.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다.